

로버트 야브리 박사, 요한서신, 제 5차시, 1절: 요한일서 - 완전한 믿음, 중심적 부담 [요한일서 1:1-2:6]

로버트 야브리 박사님의 요한 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강의입니다. 5차시, 요한일서, "온전한 신앙", 1장 1절 1절-2장 6절, "중심적 부담"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를 둘러싼 서론적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의 신학적 주제들을 다룬 강의가 두 번 있었고, 그 후 요한삼서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신뢰하는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불렀는데, 그 친구는 가이오였고, 그 후 요한2서에 대한 강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신뢰받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불렀습니다. 이 편지는 요한이 어떤 교회에 보낸 편지였는데, 제 생각에는 가이오가 그 교회에 속해 있었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인 요한2서뿐만 아니라 요한1서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요한1서는 그 교회, 그리고 아마도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들을 위해 읽히도록 쓴 편지였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요한일서를 살펴볼 텐데, 저는 이 시리즈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형 잡힌 삶"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세 편지는 함께 다양한 요소들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가정 하고 확인합니다.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요한일서를 살펴보면 저는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것,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책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모두 요한일서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요한일서에 대해 꽤 눈에 띄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사랑을 뜻하는 단어, 명사, 동사, 명사 아가페(agape)와 동사 아가파오(agapao)의 출현 빈도를 그래프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왼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으로 나타나고, 요한복음 위로 올라가면 그 기둥이 솟아오르다가 꽤 낮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는 약간 올라가다가 요한일서로 넘어가면 다시 급등하는데, 이렇게 높은 기둥들은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기둥입니다. 이 기둥들은 사랑에 대한 언급 빈도, 즉 사랑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 복음에서 그가 사랑받는 사도라고 불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의 글을 신약 성경 전체의 다른 글과 비교해 연구한다면, 그리고 저는 신약 성경 전체와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요한이 이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명사 사랑으로 되돌아가는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잠시 멈추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분을 강렬하고 풍부하게, 그리고 길게 증거하는 이 편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이 서신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메시지에 합당한 응답을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요한일서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물론 영어 전통에는 장과 절이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 방법입니다. 제가 요한일서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그리스어 본문에서 제가 주목했던 부분을 보면, 라틴 교회가 그리스어 본문을 몰랐던 수 세기 동안 동방 교회, 즉 그리스 교회, 흔히 비잔틴 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항상 그리스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교회였습니다.

영어권이나 라틴어권의 불가타 성경 전통에서 장 구분이 생기기 전에도, 그들은 요한일서를 일곱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물론 11장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 부분은 2장에서 시작하며, 세 번째 부분 역시 2장에서 시작하는 식으로, 총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섹션에 무엇이 있는지 명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런 섹션을 만든 이유 중 하나는 3, 4, 7절 등으로 참조하기 위해서였고, 또한 교회에서 사용하는 독서를 표시해 두기 위해서이기도 했습니다. 비잔틴 교회는 예배에서 많은 성경 구절을 읽기 때문에 이것을 성서 독서 또는 성서 표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구분은, 제가 "중심 부담"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핵심적인 메시지, 즉 서신은 하나님의 본성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썼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가 로마 제국이라는 상황을 향해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신들을 믿습니다.

다신교 사회가 있었지만, 인간의 삶에는 많은 어둠이 얹혀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종교였던 그리스-로마 종교는 경전도 없었고, 도덕이나 윤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종교적 체험에 대해

이야기했고, 건강, 여행, 또는 인간관계에서 신이나 여신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신이나 여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습니다. 이 신들이나 여신들은 당신과 개인적으로 교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약속하시고 땅을 만드시고 믿음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어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속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의 구원자 신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로마 세계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서론을 마치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다.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저는 이것을 요한1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부르고, 잠시 후에 이 부분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언급해야 할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복음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요한의 개념입니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이나 어린이라고 부르지만, 요한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그리스도인의 경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우리는 요한일서에서 이 내용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며,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실례합니다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영접한 모든 사람,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 또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들은 그의 자녀가 되고, 형제자매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가족 공동체가 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개념을 더욱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행하는 일, 즉 우리가 자원하고 믿고, 어느 정도 행한 일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로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구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이들은 혈통이나 민족이나 육신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녀를 갖기로 결정한 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들은 양립주의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더 큰 선택권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면에는 더 근본적이고 신비로운 무언가가 작용합니다. 바로 우리가 복음 메시지를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말입니다. 많은 경우, 가족 중에는 형제자매 중 한 명은 믿는데 다른 한 명은 믿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결혼 생활에서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니다가 한 명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한 명은 듣지도 믿지도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지 않은 건 믿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건 그들의 결정이고,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신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공로를 자기 공으로 돌리며 “내가 자격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라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복음적 정체성을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역사로 여깁니다. 복음 메시지를 통해 어떻게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들에게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지위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변화시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더 큰 뜻을 품은 이 가족에게 접붙이시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이에 대한 추론은 제가 여기 작은 유인물에 요약해 놓은 핵심 요점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놀라운 신성한 사랑에서 비롯되며, 우리는 방금 그래프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복음 메시지를 통해 그분과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우리 삶에 들어와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사랑의 자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꽤 복잡한 차트로 표현할 수 있는 그림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한 페이지에는 사랑이, 다른 페이지에는 그림이 있는 이전 차트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이

파일을 종료하겠습니다. 가끔씩 파일이 멈춰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멈춰 버린 것 같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서 최대한 큰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그 정도가 가장 크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 크기입니다.

삶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좌우 선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선, 신앙의 선, 교리의 선, 즉 복음 메시지가 담고 있는 내용의 선입니다.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와 같은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수평선의 왼쪽에는 불신앙이 있습니다. 즉,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믿음 안에 있지 않지만 복음 메시지를 듣고 그 벡터를 화살표라고 상상해 보세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 일에 자신을 맡기면 구원받습니다.

하지만 삶에서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성경에서도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삶은 자신이 믿는다고 말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아래로 선을 그어 봅시다. 그 선을 행위라고 부르죠. 순종의 선이자 윤리의 선입니다. X와 Y를 취하면 네 개의 사분면이 나오는데, 당신이 원하는 사분면은 믿음 의 오른쪽 사분면이고, 행위의 위쪽 사분면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위 사분면이 당신이 원하는 사분면이 될 겁니다. 그 사분면에는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행함은 있지만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분면에는 있고 싶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있지만 행함은 없기 때문입니다 .

행함이 없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 아마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야고보서를 읽으면 야고보가 믿음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믿음과 행함이 어떻게 함께 일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모든 것이 매우 사실입니다. 하지만 몇 년 전, 특히 대학생들과 함께 일하면서 대학생들이 믿음의 확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그들은 꽤 팬찮은 아이들이었고, 꽤 팬찮은 삶을 살고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산상수훈을 읽었는데,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날 많은 사람들이 제게 "주님, 주님" 하고 말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수평선이 있죠. "주님, 주님",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X와 Y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행한 기적들과 그분의 이름으로 행한 위대한 일들을 나열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목회 사역을 하는 일에서도요. 도덕적이고 교회에 다니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은행을 털거나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열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 또 다른 선을 추가했습니다. 그 선은 관계 의 선 , 개인적인 관계의 선입니다.

사랑이라고 부르세요. 이 그림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믿어야 하고, 일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 , 곧 하나님 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관점에서 이 그림을 바라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해 압력을 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계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전에는 배우지 못했던 방식으로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과 내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전에는 신을 믿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신이 우리 머릿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신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며 성장하고 싶어 하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메시지의 사역이며, 이를 통해 믿음이 이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 삶에 임합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현실로 만드는 믿음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계명과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자 하는 내적인 열망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관계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교감을 갖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님, 주님,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그를 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X는 교리, Y는 행위, 그리고 Z 좌표라고 부릅니다.

Z 좌표는 사랑입니다. Z 좌표는 대인 관계의 좌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설 때, 그분은 "나는 너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믿음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사랑의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서로 얽히고설킨 것입니다.

요한일서를 거듭거듭 살펴보면, 그가 사랑에 대해, 계명에 대해, 그리고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절들을 따로 떼어내 보면, "아, 이 모든 것이 사랑에 관한 거야. 중요한 것은 오직 사랑뿐이야."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행위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베푸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치 그가 자기 모순에 빠진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은 그가 이 세 가지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다른 두 가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전제하고 있는데, 믿음과 변화된 행동,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가 다른 삶의 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BORN"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신성한 부모, 아버지가 되시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BORNE(본받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에 이끌려, ~에 의해 추진되어, ~에 의해 알려지고, ~에 의해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편에서 구원을 이루는 동안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라 능동적인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과 압도적인 뜻으로 인해 작동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손을 얹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원했다고 말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 상자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따라오셨다면, 이론적인 수평면 위에 네 개의 구획이 있고, 아래에도 네 개의 구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덟 개의 칸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 중 한 칸에는 진정한 믿음, 올바른 순종, 그리고 관계, 그리고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자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요한일서를 공부하다 보면, 요한이 때때로 사람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없다고 암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사람들이고, 계명을 지키고, 사랑을 표현하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면 그럴듯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꽤 순종적인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절들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제를 돌보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합니다. 글썄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 아닙니다. 또 다른 칸이 있는데, 여기 지도의 4번 칸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일지 몰라도, 당신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영역이 있는데, 사랑은 진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독교 신앙도 없고 진정한 순종도 없는 영역입니다.

종교심 이 깊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 정말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죠. 개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온갖 종류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저 사랑하고 또 사랑할 뿐,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적어도 교리적으로는 말이죠.

기독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도덕적 삶은 엉망일지 몰라도,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순종은 있지만 믿음은 없고 사랑은 부족한,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본 범퍼 스티커가 마음에 듭니다.

“신조보다 행동이 우선” 이라고 하셨죠 . 누가 뭘 믿든 상관없다는 뜻
이예요 . 그냥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중요할 뿐이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람을 만날 때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중요해. 그게 전부야. 하지만 존에게는 이 세 가지가 서로 얽혀
있어.

복음이 사람의 마음과 의지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키우시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 대해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키워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초월적이고 무한한 실재하는 살아 있는
존재이시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을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인격적이고 내면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행동 또한
변화시킵니다.

요한일서를 읽을 때 이 세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복음 메시지를 통해 행하시는 일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먼저 요한이 자신의 권위와 목적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존재했던, 우리가 듣고, 눈으로 보고, 보고, 손으로 만져본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드러났습니다. 눈에 보이게 되었고,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본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한
생명 , 곧 성육신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생명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취하시고 오셔서 살아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합니다. 이는 여러분도 우리와
사귀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우리의 사귀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성경 구절들을 보면, 아버지,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만약 성령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이 책 전반에 걸쳐 언급했던 것처럼,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기 위해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사회적 상황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얽매어 요한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신중심적이고 그리스도중심적인 책이지, 주로 사람들과 그들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인간중심적인 책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구절들에서 우리는 첫째, 성육신이 참되고 실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안에서, 그리고 아버지 와 함께 존재하셨습니다 .

그들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입니다. 신이 두 명이나 세 명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의 신이 계십니다.

하지만 시공과 물질 밖에 존재하시고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은 자신 안에 관계를 맺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풍성함과 충만함 안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보고 만지고 보고 만지고 들은 것을 증거합니다.

둘째, 요한은 목격자만으로 충분한 증거가 된다고 믿습니다. 모세는 두세 증인의 입으로 사실을 확증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명의 증인은 아무것도 확증할 수 없지만, 여러 명의 증인은 확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증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증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증언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증언하는 모든 증인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 아버지의 증언, 그분의 권능의 역사에 대한 증언. 이러한 증거들과 다른 여러 가지 증거들이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진정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충분한 증거입니다 . 그리고 요한이 표현한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바로 기쁜 교제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 불안해하고, 기독교가 흥을 깨뜨린다고 생각하여 생각조차 꺼립니다. 하지만 사실, 인간으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깊은 만족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온전한 기쁨이며, 요한이 이 글을 쓰면서 수십 년 동안 맛보아 온 기쁨이며, 독자들에게 권하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앞의 네 구절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활동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그 속성은 거룩함입니다.

그는 초월적인 영광 속에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형상을 취하셨지만, 하나님 자신은 우주 어딘가에 있는 거대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비롭고 초월적이며 영광스러운 존재이시며, 성경에서 '빛'은 종종 하나님과 연관 지어지는데, 그 이유는 눈부신 광채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자리조차 어렴풋이 보일 때면 사람들은 얼굴을 돌립니다.

때때로 그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쓰러지는데, 그 빛은 그의 순수함을, 빛은 그의 탁월함을, 빛은 그의 완벽함을, 빛은 우리의 모습을 초월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한 존재이시며,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은 요한이 편지를 쓰는 공동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그리고 실제로 빛이라면, 요한이 편지를 쓰는 공동체, 즉 그가 편지를 쓰는 교회들 안에서도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했듯이,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말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이며, 그 외의 모든 것은 여기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활동에 대한 신학적으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사귀어 있다고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서로 사귀어 있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요,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6절, 8절, 10절에 대한 두 가지 언급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자백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지만 어둠 속을 걷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나 교회들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사이의 이러한 괴리 현상에 대한 징후들을 다룹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것들을 가르치고 행동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또 다른 긍정적인 점은 7절과 9절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로 나아가는 길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7절은 빛 안에서 행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빛 안에 계시는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서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일부일지도 모르는 죄들은 예수님의 피로 처리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의식하게 되면 그것을 고백한다는 가정에 근거합니다. 9절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이 부분의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본성과 사역, 그리고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공동체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독자들에게 호소합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이것은 목회적인 표현이다. 그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그의 마음은 그들에게로 향한다.

그분은 그들에게 헌신하시고, 그들을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는 독자들이 이 공동체 안팎의 어떤 사람들에게 존재한다고 암시한 어둠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서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며,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분의 법을 어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기지 않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대언자는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기에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며, 아버지 우편으로 승천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십니다. 즉, 그분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충족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누군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러 오지 않는 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설명하는 전문 용어는 화해입니다. 우리 죄를 위한 화해, 곧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해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어둠 속을 걷지 아니하고 빛 속을 걸으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아느니라.

4절, “나는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다. X, Y, Z 다이어그램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X는 믿음의 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거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Z는 사랑의 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지만,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요한은 만약 당신의 상황이 그런 것이라면, 당신은 거짓말쟁이이고 진리가 당신 안에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분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참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집니다. 믿음 과 사랑과 순종 은 모두 일치합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그분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분이 행하신 대로 행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분은 그리스도의 행하심, 곧 죄 없는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 예배의 삶, 예수님의 온전한 삶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믿는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합당한 목표입니다 . 요한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와 사망이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은혜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논쟁하는데, 저는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된 모든 믿는 자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것을 특별 은혜 혜택,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구원의 특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것이 온 세상의 죄이기도 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 온 세상의 믿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위해 죽으셨다는 뜻은 아니며, 그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일반 은혜의 유익이 있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약 시대에 죄를 위해 죽으실 예정이었고, 신약 시대 이후로도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심판의 손길을 멈추십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말씀하실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온 세상에 유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입니다. 또한 그분의 세상 사역 덕분에 이 세상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으며, 그 메시지를 듣고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은혜의 날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교제, 즉 그리스도와의 교제는 계명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

여기에 " 그의 뜻과 함께 "라는 단어를 추가하겠습니다 .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정한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통해 확증됩니다.

물론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없습니다. 즉, 죄를 짓지 않는다면, 동정녀 에게서 태어났다 거나, 하늘에서 왔다거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를 속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만의 고유한 면모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본받을 수 없고 시도해서도 안 됩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 그분이 메시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면 에서 우리는 봉사,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을 찾는 삶, 기도하는 삶, 어린이를 존중하는 삶, 즉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게 하려는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살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우리 자신의 훨씬 덜 완벽한 삶 속에서도 나타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의 시작, 그의 핵심적인 부담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것이 그의 백성에게 미치는 의미입니다.

로버트 야버러 박사님의 요한서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5차시, 요한일서, "온전한 믿음", 1절, 1장 1절-2장 6절, "중심적 부담"입니다.